

미군, 중동에 첫 '자폭형 공격 드론 비행대대' 편성

美 중부사령부 'TFSS' 출범 발표 중은 대잠수함 '윙롱-X 드론' 배치 양국 앞다퉀 드론 전력 강화 나서

미국과 중국이 앞다퉀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부(USCENTCOM)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드론 기술 획득과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지 4개월 만에 '태스크포스 스코피언 스트라이크(TFSS)'를 이날 출범시키고 중동지역에 가미카제식 일방 공격 드론 비행대대를 미군 최초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SS가 현재 중동에 배치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루카스-

LUCAS)' 드론으로 비행대대를 이미 편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군 설명에 따르면 루카스 드론은 도달거리가 길고 자율운용이 되도록 설계됐다. 이 드론은 투석기, 로켓 보조 이륙, 이동식 지상 및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한 발사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중부사령관 브래드 쿠퍼 해군대장은 "이 새로운 태스크포스는 혁신을 억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며 "우리의 숙련된 전사들이 첨단 드론 능력을 더 빠르게 갖추도록 하는 것은 미군의 혁신과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을 억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중부사령부는 사령부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이끄는 '신속투입 합동 태스크포스(REJTF)'를 출범시켜, 배치된 부대에 신기술을 신속히 적용하

는 절차를 가속했다.

일방 공격 드론 비행대대를 구축하려는 TFSS의 노력은 중부사령부 예하 중부특수작전사령부(SOCCENT) 인력이 주도하며, REJTF의 역량 중점 분야와 부합한다.

중국군의 경우 대(對) 잠수함 전력 강화 차원에서 윙롱-X 드론(무인기)을 실전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는 제1 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몰라카 해협)의 주요 지점에서 운용되는 일본과 미국의 잠수함 함대에 맞서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필요한 전력을 강화해왔으며, 윙롱-X 개발·생산·배치는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윙롱-X가 보잉사가 생산한 미 해군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과 비교할 때 기능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달 두바이 에어쇼에서 실물 크기의 윙롱-X를 공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윙롱-X는 유인 대함초계기와 마찬가지로 공중 또는 해상 플랫폼과의 협력이 가능하며 소나(음파탐지기)를 포함한 각종 해상 감시센서를 활용해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해 첨단 대잠수함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최대 비행시간이 40시간으로, P-8 포세이돈(10시간)의 4배 수준이다.

SCMP는 이런 조치가 미국과 일본 등 전략적 경쟁국들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잠수함전 시스템 강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온라인 관보 사전 게재

실제 적용 11월 1일부터 소급 항공기·부품 등은 지난달 14일부터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 원) 규모 대미투자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 관세표'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는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또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독일에 이스라엘 '에로-3' 첫 배치
3일(현지시간) 독일 쇠네발데-홀츠도르프 공군기지에 이스라엘산 미사일 방어시스템 '에로-3'가 배치돼 있다. 이번 배치는 러시아 위협 대응용이며 에로-3가 이스라엘 외 국가에 배치된 첫 번째 사례다. AP-연합뉴스

국방일보

국방의 모든 순간!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국방일보 유튜브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국방일보